

Park Dong Soo

‘그곳에’ 시리즈,
우주 속 생명력을 그리다.

2018. 10. 10 ~ 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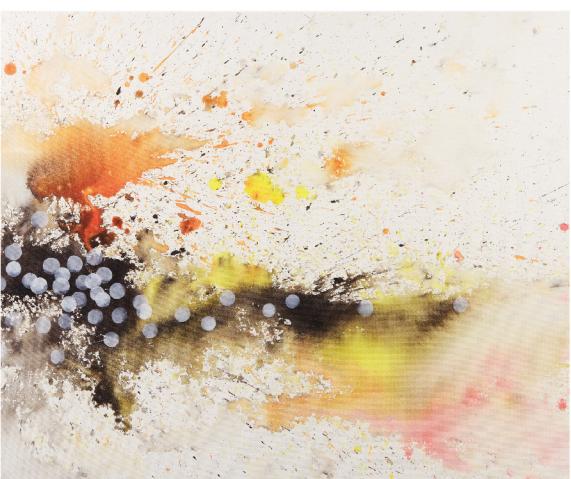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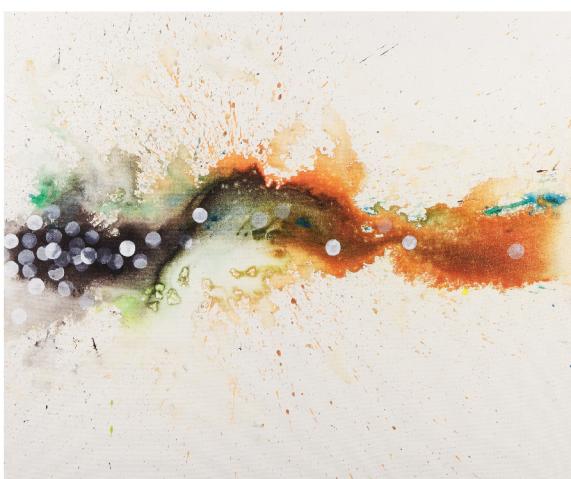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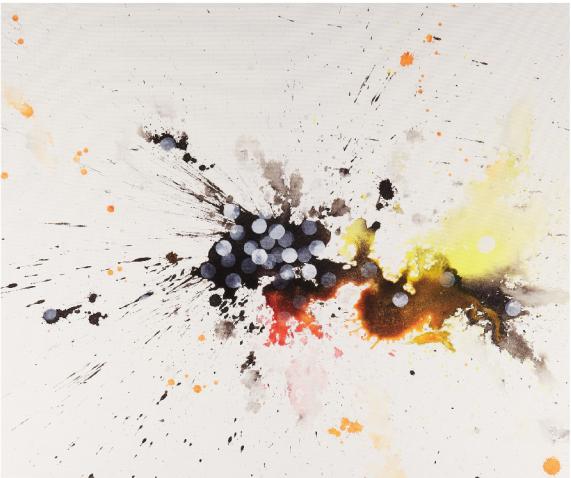
파리와 한국을 오가며 인간이라는 소우주의 내적세계와 우주속 생명의 근원을 탐구하는 아방가르드한 현대미술가 박동수는 정형화 되지 않은 형태의 이미지와 여기저기 흩뿌려진 물감의 흔적들 위로 작은 원들이 화면을 이루는 독특한 자신만의 표현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이는 행성간의 충돌에서 영향을 받아 우주와 원초적 에너지, 욕망, 무의식의 보이지 않는 힘이 용암처럼 분출하는 태초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원은 행성세계와도 같은 하나의 작은 우주를 활기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신체기관, 세포, 수정기관과 같은 내적세계와 소우주적 세계가 맞닿아 있는 세상의 기원을 천상의 완벽함과 완전함에 가까이 가도록 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복되는 원들의 움직임은 무한대에서 무한소의 세계, 혹은 무한소에서 무한대의 세계를 보여준다. 마치 우리 몸속 세포와 같이 무수히 응집된 작은 원들이 미지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곧 그 미지의 세계가 광활한 우주 속 또 다른 작은 원이 된다.

세상 어느 곳의 차원이든 변화하기 마련인 것처럼 그의 작품 ‘그곳에’ 시리즈는 유동적이다. 흐르는 물결처럼 부드러운가 하면 하늘로 치솟는 폭발처럼 강렬한 힘으로 퍼트려진 느낌도 존재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직전의 꿈틀거림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두터운 질감 표현과 강렬한 색으로 거칠고 끝없는 암흑 속 요동치는 생명력을 보여주었던 작업과 단색위에 빼곡히 응집되어 있는 작은 원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무한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던 이전 작업과 달리 이번 개인전에서는 다양한 색의 에너지들이 만나 그 위에서 더욱 자유로워진 작은 원들의 움직임들을 만날 수 있다.

- 갤러리소현 대표 원창호



그곳에 72.7×60.6cm×6ea Acrylic and Watercolor on Canvas 2018



그곳에 60.6×60.6cm Acrylic and Watercolor on Canvas 2018



그곳에 53×45.5cm×4ea Acrylic and Watercolor on Canvas 2018



박동수 Park Dong Soo (1964~)

프랑스 베르사이유보자르 시립미술학교 졸업
프랑스 파리8대학,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개인전

2018년 갤러리소현, 대구
2018년 갤러리조종분, 해미
2017년 갤러리그랑발레, 해미
2015년 갤러리소현, 대구,
2014년 서산문화회관, 서산
2013년 에스파스미나, 서울
2010년 갤러리필립사무엘, 파리.
2008년 갤러리필립사무엘, 파리,
2003년 갤러리민스키초대전, 파리,
2000년 갤러리벨린트라마르크초대전, 파리,
1999년 휴고보스초대전, 까루셀뒤루브르, 파리,
1997년 에스파스카를브리모초대전, 파리,
1996년 에스파스바또라부아초대전, 파리
1995년 앙드레말로문화센터초대전, 르부르제, 프랑스
1994년 갤러리데까레초대전, 베르사이유, 프랑스

단체전

KIAF, 화랑미술제, YIAF, Elysee de I,
Art Daegu, 상하이아트페어,
<프랑스현대미술>전,
<아시안아방가르드>전/런던 크리스티,
<살롱몽루즈>전,
LAC 국제현대미술전 외 다수

작품소장

동일캐스팅(주), 가야기획, 서울행정법원,
서울대학교, 코엑스, 태광건설, 선라이즈,
금호전기, SHJ 산업, ADES, BOERI
Consultants, 성결대학교기념관,
La Nacelle, Jacques Barrre SA